

9世紀 木造建築의 技法 研究

- 石造遺構의 建築要素를 中心으로 -

尹 禧 相

(신흥전문대학 건축설계과 조교수)

1. 序論

한국건축의 역사는 인간이 한반도에 들어와 삶을 영위하면서 隱身處(Shelter)로서의 공간형성을 위한 구조물이 만들어지면서부터 시작되었다.¹⁾

이러한 초기움집의 모습은 생활의 변화와 이에 따른 내부공간의 기능적 요구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변화를 하게 되었고²⁾ 이러한 공간을 형성하기 위한 건축물은 시대가 지남에 따라 자연적이고 인문사회적인 여러 요인에 의하여 발전과 쇠퇴의 변화과정을 거듭하면서 한 시대의 建築의 틀을 규정하게 되며, 이것이 결국에는 건축양식으로 결정된다.

한 국가의 성립은 지배권력을 행사하는 통치

자 집단과 피지배자 주민집단으로 양분되며, 이때부터 통치자 즉, 왕은 지배권력을 강화시키고 영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소위 權威建築을 짓기 시작하게 된다.

이러한 권위건축은 삼국시대에 佛敎가 中國에서 들어옴에 따라 더욱 규범적인 형태로 정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³⁾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목조건축 遺構로 가장 오래된 것은 안동에 있는 鳳停寺 極樂殿으로 12세기 또는 그 以前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⁴⁾ 그 이외의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의 목조건축 유구는 현존하고 있는 것이 없으며 단지 당시 목조건축물의 일부 부재가 발굴에 의해 출토되고 있다.⁵⁾

1) 人間이 한반도에서 道具를 이용하여 본격적으로 주거공간을 만든 時期는 B.C. 3,000년 경인 新石器時代에서부터 알려져 왔으나, 최근 강원도 양양군의 오산리 유적의 주거지가 B.C.6,000년으로 그 상한연대가 나와 우리나라 신석기시대 및 움집의 시작을 B.C. 6,000년까지 올려놓을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전자는 金正基, 『우리나라 住宅의 歷史』, 대한주택공사, 1979. 후자는 대한건축학회편 『한국건축사』中, 金正基, 金奉建 공동집필한 제1장 원시시대의 내용중 p28 참조.

2) 신석기시대 원형이나 방형의 움집평면에서 청동기시대의 장방형의 움집평면으로의 변화는 여러요인 중 내부공간의 기능적인 변화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3) 불교의 공인은 고구려가 4세기경, 백제가 5세기경, 그리고 신라가 6세기경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불교의 전래는 아마 국가적으로 공인되기 훨씬 이전부터 되어졌을 것으로 보이며 결국 삼국의 왕들은 불교라는 종교를 통하여 왕의 권위를 확고히 하려는 왕권강화책의 일환으로 불교를 공인하게 된다. 이러한 정치적 배경은 권위건축을 더욱 강조하고 규범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4) 1972년 해체수리시 발견된 상량문에 의하면 極樂殿은 元의 年號인 至正 23年 즉, 高麗 恭愍王 12年(1363) 3月 屋蓋部를 重修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따라서, 이 건물은 건물의 건립후 옥개부 중수까지의 기간을 평균 약 150~200여년으로 볼 때 12세기 또는 그 이전의 건물로 추정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료의 한계는 삼국시대와 통일신라 및 발해시대의 건축사 연구에 많은 제약조건이 되어왔으며, 따라서 한국건축사는 건축기술 및 기법에 있어 그 통시적인 연구가 매우 미흡한 상황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현존유구 중심의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여러 건축사료를 중심으로한 체계적인 연구활동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한국의 古代 및 中世建築의 규명에 다양한 시각으로의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⁶⁾

따라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이 정립된 고대에서부터 통일신라시대를 거쳐 고려시대 전기 즉, 봉정사 극락전이 건립되어진 시기까지의 목조건축의 흐름 및 시기적 특성의 파악을 위해서는 많은 간접사료에 의한 연구가 요구되어진다.

本 研究는 이러한 관점에서 통일신라시대의 下代⁷⁾인 9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제작된 建築史

料들을 중심으로하여 이에 표현된 건축요소 및 이들의 공통된 특징과 상이점, 그리고 변화과정 등을 分析·考察하고 동시대의 중국과 일본의 건축과 비교하여 韓國 中世建築의 形成期에 나타난 목조건축 기법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2. 9세기의 時代背景과 建築史料

2-1. 時代背景

9세기는 新羅下代에 해당하는 시기로서 극심한 왕위찬탈전으로 말미암아 中代에 비해 왕권이 매우 약화되는 반면, 지방의 新興貴族들 즉, 豪族의 세력이 강화된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왕실 주도하의 건축공사가 경제력과 군사력을 확보하기 시작한 지방 호족중심으로 변화되며, 이에 따라 전반적으로 8세기 이전까지 지속되었던 고대적 규범의 건축적인 틀에서 벗어나는 경향이 지배적으로 나타난다.⁸⁾ 또한 대부분 華嚴思想에 심취해 있던 국내의 승려들은 8세기경부터 중국으로 유학하여 불교의 새로운 조류인 禪思想을 접하게 된다. 이후 道義禪師가 821년에 歸國하는 것을 始初로 唐末, 武帝의 廢佛政策(A.D.841~846년)으로 말미암아 신라의 禪僧들은 잇달아 대거 귀국하게 된다.

그러나 이들 선승들은 국내의 宗教의 權威에 부닥쳐 禪法을 펼 수가 없게 되자 대다수 地方山谷의 山門으로 隱居하여 버리게 된다. 그러나 禪宗이 내세운 「不立文字」, 「直指人心」, 「頓悟漸修」 등의 교리는 공허한 이론에 빠져 버린 敎學佛敎의 한계성과 모순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었던 당시의 佛敎徒들과 地方豪族 및 新進 士大夫 階層인 六頭品 知識人, 民衆들의 支持를 받아 급속도로 전파되게 되며, 9세기에

5) 발굴에 의해 출토된 목조건축 부재로는 백제시대의 절터인 익산 미륵사에서 난간소로, 서까래, 널문材 등이 출토되었고, <張慶浩, 『韓國의 傳統建築』 p102 참조> 통일신라시대의 유구인 경주 안압지에서 공포부재의 일부인 첨차와 소로, 서까래, 부연, 난간 등이 출토된 것< 앞책, p157 참조> 이 있다. 이 외에는 현재 목재로 출토된 유구는 알려져 있지 않다.

6) 최근의 연구성과로는 김동욱 교수의 「『한국건축의 역사』, 技文堂, 1997.」이 있는데 이 책은 한국건축의 역사를 사회, 경제여건의 변화에 바탕을 두고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신라말~고려초기의 건축을 고대의 규범을 벗어나는 중세건축의 시작기로 보고 있다.

또다른 연구로서 金度慶의 「『高麗時代 觀經變相圖의 殿閣圖에 관한 研究』,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1권4호 통권 78호, 1995년4월.」이 있는데 시대는 14세기 이전 즉, 고려시대의 전각도에 관한 연구이지만 현존유구가 극히 한정된 고려의 건축기법을 규명하는데 또다른 방법을 제시함에 있어 그 연구의 意義 및 價値가 있다고 본다.

7) 신라는 크게 3대로 구분하는데 그 중 中代는 29대 太宗 武烈王(654~660)부터 36대 惠恭王(765~780)까지의 시기로서 삼국을 통일하고 정치적 안정과 문화적 융성은 물론 羅·唐關係를 바탕으로 미증유의 평화가 유지된 한국고대사의 황금기로 인식되고 있다. (申滄植, 『統一新羅史研究』, 三知院, 1990. p119.) 한편 下代는 37대 宣德王(780~784)부터 56대 敬順王(927~935)까지의 약 155년간으로서 이시기를 다시 3기로 세분해 보면,

① 제1기(780~839) : 37대 宣德王 ~ 45대 神武王(9대 59년간). 異系 金氏王室이 등장하여 극심한 왕위찬탈전을 벌임.

② 제2기(839~911) : 46대 文聖王 ~ 52대 孝恭王(7대 72년간). 傍系 金氏王室이 定着하여 일시 社會의 安定이 이루어짐.

③ 제3기(912~935) : 53대 神德王 ~ 56대 敬順王(4대 23년간). 甄萱(李氏)의 後百濟와 王建(王氏)의 高麗가 分立하고, 신라 王室에도 새로운 異系 朴氏王權이 등장함.

8) 김동욱, 『한국건축의 역사』, 技文堂, 1997. p99

이러러 初期의 禪僧들에 의해 배출된 弟子들은 전국 각지에 소위 禪이라는 새로운 思想을 불러 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신라의 禪僧들은 高麗 中期에 들어서면서 소위 '九山禪門'으로 정리되어 가며⁹⁾ 九山禪門은 羅末麗初의 禪宗界를 망라하는 대표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¹⁰⁾

9) 崔柄憲, 「新羅下代 禪宗九山派의 成立」, 『韓國史研究』, 1972.의 내용을 요약하여 九山禪門의 성립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迦智山派 (普照禪師 體澄 - 全南 長興 迦智山 寶林寺) : 中國의 西堂智藏에게서 嗣法한 道義가 821년 귀국하여 처음으로 禪宗을 도입하나 魔語라는 既存 敎宗의 비난을 받고 雪嶽山 陳田寺에 隱居하면서 廉居和尚(?~844)에게 心印을 전수하였고, 廉居는 普照禪師 體澄(體澄:804~880)에게 전함. 體澄은 전남 장흥 迦智山 寶林寺를 창건. (1組 : 道義, 2組 : 廉居, 3組 : 體澄)

② 實相山派 (洪陟 - 전북 남원 지리산 實相寺) : 中國의 西堂智藏에게서 道義와 함께 嗣法한 洪陟이 興德王元年(826)에 귀국하여 同王 3년(827) 전북 南原 智異山에 實相寺를 開創함.

③ 桐裏山派 (大安徽國師 惠哲(785~861) - 전남 谷城 泰安寺(泰安寺))

④ 鳳林山派 (眞鏡大師 審希(855~923) - 경남 昌原 鳳林寺) : 眞鏡大師 審希는 慧目山 高達寺의 圓鑑國師 玄暉(787~868)의 禪風을 이어받음

⑤ 獅子山派 (澄曉大師 折中(826~900) - 강원도 영월군 水周面 興寧寺) : 雙峰雲(徹鑑禪師 道允(798~868))이 文聖王 9년(847)에 귀국. 그의 제자 折中이 계승하여 開創. 憲康王 8년(882) 강원도 原州 獅子山에 住持하자 王이 '獅子山 興寧禪院'이라 하고 中使省에 隸屬시킴.

⑥ 道覺山派 (通曉大師 梵日(810~889) - 강원도 江陵 窟山寺)

⑦ 聖住山派 (朗慧和尚 無染(800~888) - 文聖王 9년(847) 충남 保寧 崇巖山 聖住寺) ; 九山派 中 가장 번창

⑧ 須彌山派 (無染의 제자 眞澈大師 利嚴(866~932) - 황해도 해주군 首陽山 廣照寺)

⑨ 義陽山派 (靜眞大師 兢讓(878~956) - 경북 문경군 加恩面 院北里 鳳巖寺) : 智證大師 道憲의 제자인 雙溪炤(眞鑑國師 慧昭(774~850))가 중국유학 후 귀국하여 興德王의 환영을 받았으며 智異山 玉泉寺(雙溪寺)에 六祖慧能의 影堂을 세우고 禪法을 신앙함. 고려 초기에는 義陽山派의 祖師로 追尊되기도 하였으나 開山祖인 智證大師 道憲과의 法嗣관계는 不明임. 道憲의 門下에 楊孚(?~917) 등 5인이 있었고 楊孚의 門下에 靜眞大師 兢讓(878~956)이 있는데 그는 敬順王 9년(935)에 義陽山에 가서 賊火로 폐허가 된 鳳巖寺를 재건하였다.

10) 高翊晉, 『韓國古代 佛教思想史 研究』, 東國大學校 大學院 博論, 1987. pp345-390 요약.

한편, 許興植 교수는 『「高麗佛教史研究」 - 潮閣, 1986.』에서 五敎九山說을 비판하고 高麗 4大宗派說을 주장

이상의 9세기의 시대적인 상황은 王室中心의 中央 執權勢力의 약화로 인한 地方 豪族勢力의 강화와 이들 호족세력과 禪宗系 승려들과의 자연스러운 결합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같은 호족세력과 선승들과의 결합은 물리적인 세력인 군사력과 정신적인 세력인 학문적 사상의 결합을 의미하며, 이는 건축 및 모든 미술사조 전반에 지방화의 경향을 불러일으켜 지역적인 독특한 문화특성을 나타내게 되었다. 이러한 性向은 9세기에 조성된 伽藍의 立地 및 配置에서 알 수 있으며¹¹⁾ 또한 石塔과 浮屠¹²⁾ 등 당시의 美術史料에 전반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2-2. 建築史料

9세기의 건축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현존 건축사료로 가장 유력한 것으로는 石塔과 浮屠 등의 석조유구를 우선으로 들 수 있다.

7세기와 8세기 사이에 한반도는 石塔 造成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또 조형적으로 완숙된 단계에 이르렀다. 中國이 전돌을 재료로 해서 독특한 외관을 갖춘 塼塔을 세웠고, 日本이 木塔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그 형태의 세련미를 더해 갔던 것에 비해서 신라는 화강석을 재료로 한 석탑에서 역시 독창적인 조형예술을 창출해 나갔다.

부도는 승려의 墓塔으로서 그 건립은 주로 스승과 제자가 하나의 문파를 이루는 경향이 짙은 禪僧들 사이에서 시작되었다. 팔각원당형의 석조부도는 9세기 중엽에 등장함과 동시에

한다.

11) 9세기로 넘어가면서 불교사찰은 2탑식 가람으로 대표되는 신라의 정형적인 가람구성의 규범을 벗어난 모습을 보인다. 소극적으로 2탑식의 배치방식에 변화를 가미하는데서부터 완전히 배치개념을 혁신적으로 새롭게 조성하는 방식에까지 다양한 변화가 전국 각지에서 전개되었다. (김동욱, 앞책, p99)

12) 이에 관한 저서 및 연구로는,

秦弘燮, 『韓國의 石造美術』, 文藝出版社, 1995.

朴慶植, 『統一新羅石造美術研究』, 學研文化社, 1994.

金香淑, 『羅末·麗初의 八角圓堂形 石造浮屠研究』, 弘益大 大學院 碩論, 1987.

李銀基, 『新羅末高麗初期의 龜趺碑와 浮屠研究』, 弘益大 大學院 碩論, 1975. 등이 있다.

표 1. 建築要素를 포함하고 있는 美術史料(8C~12C)

구분	명칭	제작시기	건축요소	비고
佛畫	大方廣佛華嚴經 變相圖	新羅 755년	기단, 난간, 기둥, 공포, 처마, 지붕	국보 제96호 호암미술관 소장
工藝品	樓閣山水文様博	新羅下代	기둥, 창호, 공포, 지붕	사천왕사 출토 / 경주박물관 소장
	金銅三尊佛龕	高麗 11~12세기 추정	기단, 기둥, 문얼굴, 공포, 처마, 지붕	국보 제73호 / 간송미술관 소장
	金銅大塔	高麗 10~11세기	기단, 난간, 계단, 기둥, 창호, 수장재, 공포, 지붕	국보 제213호 / 호암미술관 소장
	銅製陽刻龍樹殿閣文圓形鏡	高麗 10~14세기	창호, 공포, 지붕	국립청주박물관 소장
石造物(塔)	塔材	新羅下代	공포, 지붕	경주박물관 소장
	義城塔里 五層石塔	新羅 8세기 전후	기단, 문얼굴, 기둥, 주두	국보 제77호 / 경북 의성군
	實相寺 百丈庵 三層石塔	新羅 9세기경	난간, 기둥, 공포	국보 제10호 / 전북 남원군
石造物(浮屠)	廉居和尚塔	新羅 844년	기둥, 문얼굴, 수장재, 처마	국보 제104호 / 서울 경복궁내
	大安寺 寂忍禪師 照輪清淨塔	新羅 861년	기둥, 문얼굴, 처마, 수장재	국보 제273호 / 전남 곡성군
	雙峯寺 澈鑿禪師塔	新羅 868년	기둥, 문얼굴, 수장재, 공포재, 주녀, 지붕	국보 제57호 / 전남 화순군
	鷲谷寺 東浮屠	新羅 870년대	기둥, 문얼굴, 수장재, 처마	국보 제53호 / 전남 구례군
	寶林寺 普照禪師 彰聖塔	新羅 880년	기둥, 주두, 문얼굴, 처마	보물 제157호 / 전남 장흥군
	鳳巖寺 智證大師 寂照塔	新羅 883년경	기둥, 문얼굴, 처마	보물 제137호 / 경북 문경군
	雙谿寺 浮屠	新羅 885년	처마, 지붕	보물 제380호 / 경남 하동군
	實相寺 證覺大師 凝寥塔	新羅 861~893년경	기둥, 문얼굴, 수장재, 지붕	보물 제38호 / 전남 화순군
	實相寺 秀澈和尚 楞伽寶月塔	新羅 893년경	기둥, 문얼굴, 수장재, 지붕	보물 제33호 / 전남 화순군
	望海寺址 石造浮屠	新羅 9세기 末	기둥, 문얼굴, 수장재, 처마	보물 제369호 / 경남 울산군
	石南寺 浮屠	新羅下代	기둥, 문얼굴, 수장재, 처마	보물 제173호 / 경남 울주군
	鳳林寺 眞鏡大師 寶月凌空塔	新羅 923년	기둥, 수장재	국보 제362호 / 서울 경복궁내
	鷲谷寺 北浮屠	高麗 初期	기둥, 문얼굴, 수장재, 처마	국보 제54호 / 전남 구례군
	高達寺址 浮屠	高麗 初期	기둥, 문얼굴, 창호	국보 제4호 / 경기 여주군
	石造浮屠	高麗 初期	기둥, 수장재, 처마	보물 제258호/대구 경북대박물관
	達成 道鶴洞 石造浮屠	高麗 初期	기둥, 수장재, 화반	보물 제601호 / 동화사 경내
	石造浮屠	高麗 939년경	기둥, 문얼굴, 수장재, 처마	보물 제351호 / 이화여대박물관
	甲寺 浮屠	高麗 初期	기둥, 문얼굴, 수장재, 처마	보물 제257호 / 충남 공주
	普願寺 朗圓大師 悟眞塔	高麗 940년	기둥, 문얼굴	보물 제191호 / 강원 명주군
	興法寺址 眞空大師塔	高麗 940년	기둥, 처마, 지붕	보물 제365호 / 서울 경복궁내
	大安寺 廣慈大師塔	高麗 950년	기둥, 문얼굴, 처마, 지붕	보물 제274호 / 전남 곡성군
	鳳巖寺 靜眞大師 圓悟塔	高麗 965년	난간, 기둥, 문얼굴, 처마	보물 제171호 / 경북 문경군
	高達寺 元宗大師 慧眞塔	高麗 977년	문얼굴, 처마	국보 제7호 / 경기 여주
	普願寺址 法印國師 寶乘塔	高麗 978년	난간, 기둥, 문얼굴, 처마	보물 제105호 / 충남 서산군
	居頌寺 圓空國師 勝妙塔	高麗 1025년	기둥, 창호, 처마, 지붕	보물 제190호 / 서울 경복궁내
	法泉寺 智光國師 玄妙塔	高麗 1085년	기둥, 문얼굴, 수장재	국보 제101호 / 서울 경복궁내
	槐山 外沙里 石造浮屠	高麗 中期	기둥, 수장재	보물 제579호/서울 간송미술관
	掘山寺址 浮屠	高麗 中期	기둥, 문얼굴, 수장재	보물 제85호 / 강원 명주군
石造物(石燈)	實相寺 百丈庵 石燈	新羅下代	난간상세	보물 제40호 / 전북 남원군

양식적인 완성을 보이고 있다.¹³⁾

이와 같이 조형물을 통한 禪宗의 布教는 新羅下代의 政治, 社會的인 혼란 가운데서 그들이 표방하는바 대로 문자나 복잡한 교리에 의존하지 않고 누구나 쉽게 예배할 수 있는 조형물을 통하여 祖師의 大德과 가르침을 전달하고자 하였던 발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浮屠는 당시의 종교와 문화가 조화를 이루며 아름다움과 종교적 신비를 표현한 예술품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9세기에 건립된 부도에 등장하는 다양한 조식은 당대의 時代意識이 조형물을 통하여 표현된 것이며 9세기 美的감각의 새로운 일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나라 부도 건립의 시발은 7세기 전기에서 증엽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당시 중국에서도 이미 이러한 묘탑을 건조하였는데 그 실례로 당나라의 草堂寺 鳩摩羅什舍利塔을 들 수 있다.¹⁴⁾

이후 813년 신라 慧德王5년(唐 元和 8년)에 건립하였다는 斷俗寺 神行禪師碑에 『是以招名匠 畫神影 造浮圖 存舍利』라 하여 부도의 존재를 알리고 있으나 현재 남아있지 않다. 이후 실물을 볼 수 있는 부도로는 신라 文聖王 6년(844년)에 건립된 廉居和尚塔으로 이것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것이다.

이 후 부도는 지속적으로 건립되었는데 신라 시대에 건립된 부도에 관하여는 그간의 연구를 통하여 연대가 확실한 8기와 同 時期의 作으로 추정되는 10기 등 모두 18기가 현존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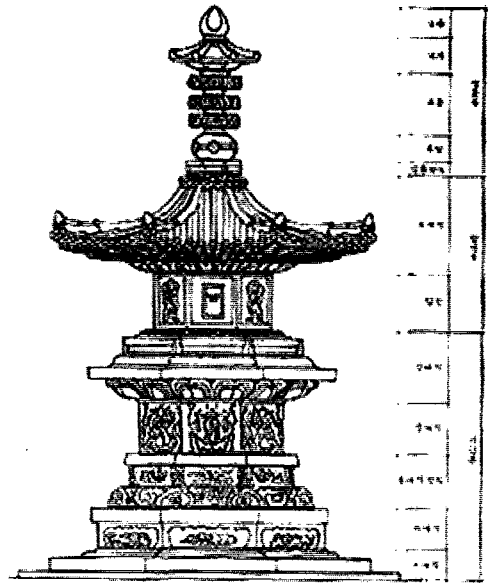


그림 1. 八角圓堂形 浮屠의 各部名稱
(智證大師 寂照塔, 924)

이 확인되었다. 이 중 9세기에 건립된 부도는 모두 16기로 파악되어 이 시기가 부도라는 형식의 조형물이 정착된 때였음을 알 수 있다.¹⁵⁾

신라의 석조부도는 그 구성에 있어 팔각을 평면구도로 하여 지대석 위에 基壇部·塔身部·相輪部로 구성되어 있는데 8각원당형은 전체적으로 보아 목조 8각당을 그대로 석조물에 옮긴 것이라 할 정도로 같은 형식이라 할 수 있다. 즉, 8각탑신의 정면과 뒷면에 문얼굴을 표시하고 그 좌·우에는 四天王像을 조각하였으며 특히 각 면의 모서리에 기둥을 조출하여 기둥모양을 표시하고 있으며 기둥의 상,하부에는 인방과 창방 등을 조각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옥개석에 있어서는 처마에 서까래나 부연을 조각하고 그 위에 기와골을 나타내었으며 특히 막새기와의 형태를 조각하고 있는 바 이러한 모든 조형은 곧 목조의 번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러한 8각원당형의 석조부도가 이루어지기에 앞서 팔각당형의 목조건축의 조영이 선

13) 禪宗에 있어서는 복잡한 教理와 禮佛儀式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禪의 가르침과 坐禪만이 중시되었던 까닭에 禪師의 人寂은 마치 부처의 入寂에 버금가는 중대사였다. 이에 따라 禪師는 그들 門徒들에게는 이제 부처님 격으로 절대시되었던 것이고 그 힘으로 문과의 융성을 꾀하게끔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文字에 의하지 않고 그들의 教理를 전달해야만 하는 門派에서는 禪師의 墓塔을 온갖 정성을 다해 조성함으로써 一般大衆은 물론 中央貴族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지지기반을 확립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文明大, 『韓國彫刻史』, 悅話堂, 1980, p.245)

14) 鄭永鎬, 「浮屠의 기원과 八角圓堂型」, 『石燈 浮屠碑』韓國의 美 15. 중앙일보사, 1981.

15) 朴慶植, 『統一新羅石造美術研究』學研文化社, 1994. pp233-239. 요약

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다. 8각 원당형으로 알려진 건물로는 고구려의 청암리 사지·원오리사지·정릉사지·토성리사지의 팔각목탑지, 쌍영총·안악3호분·요동성총·태성리1호분의 팔각석주를 비롯한 각 건물지의 팔각 주초석이 있고, 신라는 경주시 사정동 팔각목조건물지, 감은사지 서삼층석탑의 청동계 사리기와 불국사 다보탑의 탑신부와 삼국시대부터 8세기에 걸쳐 조성된 금동불 및 석불의 대좌에 보이는 팔각형의 대석 등 많은 예에서 볼 수 있어 팔각형의 구조는 일찍부터 불가의 조형물에 채택되었음을 알 수 있다.¹⁶⁾

3. 建築史料의 分析

3-1. 建築要素의 分類

신라하대에서 고려전기까지의 건축을 반영하는 사료는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불화와 공예품, 그리고 석조물로 구분되는데 그 중 대부분이 석조물에 집중되어 있으며 석조물 중에서도 석조부도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

이중 9세기의 유물로는 석탑으로 實相寺 百丈庵 三層石塔이 대표적이고 부도로는 雙峯寺 澈滸禪師塔을 들 수 있다. 本考에서는 이들 9세기의 유구에 표현된 건축요소를 추출하고 이들의 기법을 고찰하며 또한 中國과 日本의 建築史料와 함께 比較 考察함으로 당시의 建築技法 및 形式을 導出해 보고자 한다.

上記의 석조유구에서 추출되는 목조건축의 요소와 기법은 주로 탑신부와 옥개석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탑신부에서는 기둥, 문얼굴, 난간, 수장재, 그리고 栱包의 구성부재 및 包作형식을, 옥개석에서는 처마구성과 추녀, 사래 그리고 도리와 단장혀 및 연목의 형태를 추출할 수 있다. 또한 지붕부에서 지붕곡선과 각종 기와의 종류 및 형태, 그리고 막새기와의 문양 등이 파악된다. 물론 이들의 건축요소가 목조건축 유구에서 나온 것이 아닌 석조물에서 당

표 2. 石塔 및 浮屠에 나타난 建築要素

목조 석조	건축요소		비고
	기둥	형태, 흘림	
탑신부	창호	문얼굴(문선, 문미, 문지방), 신방목, 문짝	
	수장재	창방, 인방	
	난간	돌란대, 난간기둥, 소로, 난간 살대, 청판	
	공포	주두, 첨차, 소로, 살미첨차, 포작형식	
	처마	연목, 추녀, 사래, 처마구성, 평고대	
옥개석	가구	도리, 단장혀	
	지붕	지붕곡, 기와, 잡상,	

시의 건축물을 모방하여 제작된 것이므로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당대의 건축전반을 파악하는데는 매우 귀중한 자료라 할 수 있다.

3-2. 建築史料의 事例分析

(1) 實相寺 百丈庵 三層石塔

이 탑은 양식상 異形石塔이라고 할 정도로 공예적이고 건축적인 요소를 많이 내포하고 있는 탑이다. 특히 주목할 것은 각층 탑신의 상부에 기둥머리를 가로지르는 창방과 그 사이 중앙에 주두와 첨차 그리고 그 위로 세계의 소로가 놓여 소위 一斗 一升의 포작형태를 보여 주고 있다. 물론 보방향로의 살미첨차의 유무와 下昂材의 유무 등 석탑재로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부재가 있겠으나 이렇듯 창방 위에 놓여지는 포작형식의 구조재가 결국에는 다포계형식의 포작을 이루어 갔을 것이라는 짐작을 가능케 해 준다. 따라서 실상사 백장암 3층석탑의 탑신상부의 건축요소의 모각은 기둥위에만 공포가 놓이는 주심포계형식에서 기둥 사이에도 공포가 놓여지는 다포계형식으로 전이되어 가는 시원적인 모습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포 사이에는 등자대공이 놓여 하중을 분산시켜 전달받고 있어 아직 평방이라고 하는 다포계의 구조체계를 완성하는 부재가 등장하기 이전에 상부의 하중을 창방으로 분산전달시

16) 黃壽永, 「多寶塔과 新羅八角浮屠」, 『考古美術』 123·124, 韓國美術史學會, 1974.



그림 2. 實相寺 百丈庵 3層石塔

켜주기 위한 구조적인 방법의 하나라고도 판단되어진다.

또한 이 탑의 2층과 3층의 탑신 하부에는 난간의 상세한 부재들이 모각되어 있는데 난간동자 기둥들이 중간수평재인 중방을 뚫고 나와 돌란대를 받치는 난간구조의 형식은 이미 이 시기부터 봉정사 극락전을 전후한 시기까지 이어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난간에 착고널을 끼우거나 궁판을 두지않고 살대로 끼워 卍字形態를 나타내는 法式은 안압지에서 출토된 난간부재에도 나타난다.

2) 廉居和尚塔(844년)

塔身은 팔각형으로서 각면 양측에 기둥을 세우고 전후면에는 문얼굴을 모각하고 내면에 자물통과 문고리 두개를 양각하였다. 문얼굴이 있는 전후면의 양 옆면에는 각기 四天王立像을 배치하였으며, 나머지 면에는 兩隅柱 아래로 下枋을 돌리고 상부에 引枋을 놓아 문얼굴을



그림 3. 廉居和尚塔 (844년, 경복궁내)

이루었는데 신방목은 모각되어 있지 않다. 그 위 기둥머리에는 창방을 수평으로 건너질러 벽체의 틀을 갖추고 있다.

탑신 8면 중 가장 중심부는 문틀이 모각되어져 있는데 그 위의 상인방과 창방 사이에 화반과 같은 부재를 모각하여 놓았다.

기둥 위에는 주두나 소로 또는 첨차와 같은 공포구성 부재는 조각되어 있지 않다.

옥개석은 탑신위에 놓이는 하면부분에 1단의 각형받침을 조출하고 弧形을 이룬 처마부분에는 비천상을 조각하였는데 전면이 아니고 1면씩 건너 4면에만 배치하였다. 연목을 받치고 있는 도리는 각형도리의 형태를 하고 있으며, 추녀에 이르는 하면에는 단부가 원형인 연목은 없이 각형의 椽木을 모각하였다. 옥개상면은 8면의 합각에 폭이 굵은 추녀마루를 표시하고 낙수면에는 기와골을 조각하였으며 그 끝은 암수의 막새기와 모양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각 추녀마루의 끝에는 곱새기와 형태의 아래기기와를 모각한 흔적이 남아있다. 추녀는 거의 수평을 이루며 내림마루는 비교적 완만한 구배를 이루고 있다. 이와같이 옥개석에서는 연목과 기와골, 암수막새기와, 내림마루의 모각과 아래기기와 등 목조건축을 충실히 모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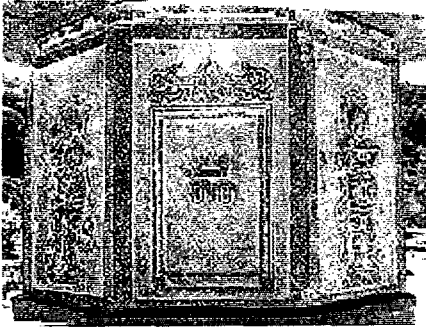


그림 4. 寶林寺普照禪師彰聖塔 塔身部

3) 寶林寺普照禪師彰聖塔(880년)

탑신석이 다른 부도에 비해 유난히 크고 높은 비례를 이루고 있어 부도는 8각의 각 면에는 양 우주각 조각되고 특히 상단부는 굽이 내반된 곡선을 그리는 柱頭를 모각하여 목조가구를 구현한 일면을 보이고 있다. 탑신 8면에는 전후면에 문얼굴을 모각하고 그 좌우면에는 사천왕상을 조각하였는데 탑신석의 각 조각에서 다른 부도들과는 달리 주목되는 점을 몇 가지 볼 수 있다. 즉 자물쇠와 그 밑에 두 개의 원형 문고리 각각 모각되었는데 자물쇠는 귀면을 양각하여 특이하게 보이고 문고리도 깊게 양각하여 입체감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문얼굴위에 꽃문양을 조각한 것이라든가 문얼굴의 운곽 등 전체적인 구성은 당시 부도의 일반적인 법식을 따르고 있다. 하부의 문지방과 문틀사이에는 장방형의 단면을 가진 넓직한 신방목을 조각하여 내부로 문을 여닫게 하였다.

기둥은 머리부분에서 폭이 좁아지는 배흘림 기둥을 하고 있으며 기둥머리에는 창방이 놓여지고 기둥위에 곡주두를 올려 놓았고 그위에 첨차나 소로없이 단장혀를 놓아 그 위의 주심도리를 받치고 있다. 주심도리는 납도리 형태로 모각되어 있고 창방과 운두가 거의 같으며 주두위에 놓인 단장혀는 창방운두의 약 1/2가량 된다.

옥개석은 8각형으로 하면에 연목형을 모각하고 있는데 탑신석에 놓이는 부분에 8각으로 2단의 각형받침을 조출하고 처마부분에는 구름



그림 5. 雙峯寺 澈鑿禪師塔

문양을 조각하였다. 처마끝은 수평에서 위로 들려 올려졌으며 상면에는 8면의 합각에 추너마루가 굽직하게 조각되었고 그 사이의 낙수면에 기와골이 표현되어 있다.



그림 6. 雙峯寺 澈鑿禪師塔 배흘림기둥

4) 雙峯寺 澈鑿禪師塔(868년)

이 부도는 신라 석조부도의 통식인 8角圓堂형을 이루며 기단부에 탑신과 옥개석이 놓여있으며, 옥개상면에는 원형의 擦柱孔만이 남아있고 상륜부는 없어졌다. 그리고 각 부의 석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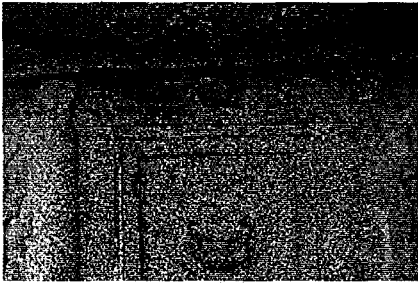


그림 7. 澈鑿國師塔身部

화강암으로 하대석 1매, 중대와 상대석이 동일석, 탑신과 옥개석이 각 1매씩 모두 4매석으로 구성되었다.

8각탑신의 모서리에는 원기둥을 세웠으며 배흘림의 수법이 완연하며 기둥위에는 曲柱頭가 표현되어 있고 圓柱의 기둥머리 사이에는 昌枋이 가로 놓여 있으며, 창방 중앙에는 주두와 같은 크기의 받침재가 놓여 주심장혀(또는 포중방)를 받고 있다. 탑신은 전후면에 문얼굴이 모각되어 중앙에 자물통이 조각되었고 다른 4면에는 사천왕상이, 나머지 2면에는 공양비천상 2좌씩이 각각 조각되어 있다.

옥개석 또한 8각으로 낙수면이 평박하며 각 추녀마루선이 굽직하고 유려하게 흘러 내렸고 기와골이 표시되었다. 그리고 기와골 끝에는 암막새와 숫막새의 막새기와의 정교하게 나타내었는데 특히 숫막새기와는 실제 건물의 와당처럼 8엽의 연화문을 조식하여 사실적인 표현에 주목을 끌게한다. 옥개정면에는 2단의 각형괴임을 각출하여 상륜부를 받도록 되었는데 현재 상륜부재는 하나도 남아있는 것이 없고 괴임대 중심에 원형 찰주공이 있을 뿐이다. 옥개석 하면에는 네군데에 비천상이 두 군데에 향로가 나머지 두 군데에 화문이 조식되었으며 연목과 부연이 표시되어 있다. 추녀부분은 주두위로 귀한대 살미침차와 흡사한 침차가 추녀방향으로 처마받침의 곡을 따라 모각되어 있고 그 위로 소로가 놓였는데 그 위로 도리방향으로는 단장혀가 놓이고 추녀는 소위 알추녀라고도 명칭하는 2단접은 형태로 모각하여 놓았다. 단장혀 위로는 납도리 형태의 처마도리가 놓여



그림 8. 澈鑿國師塔 처마부 詳細

연목을 받치고 있다.

연목은 단부와와의 직경에 차이가 별로 없어 보이거나 부연은 단부로 갈수록 급격하게 줄어들어 단부에 걸리는 하중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구조적이고 의장적인 기법이 보인다. 처마구성의 특이한 점은 겹처마이면서도 추녀위에 사래가 없이 그대로 부연이 놓인다는 점이다. 또한 추녀의 폭도 연목의 직경과 거의 같은 치수를 보인다.



그림 9. 實相寺 智證大師 凝寥塔

5)實相寺 證覺大師 凝寥塔(861~893년)

실상사의 開山祖師인 證覺大師의 浮屠로 극락전 동편에 위치하고 있다. 1매의 판석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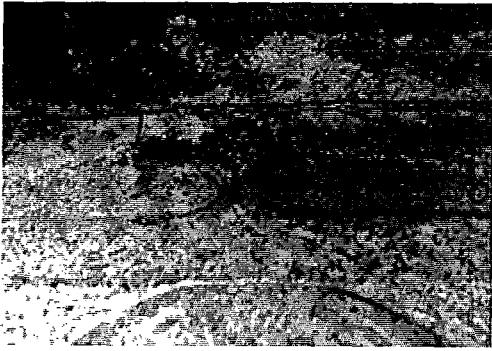


그림 10. 實相寺證覺大師凝膠塔 昌枋中央 받침재

조성된 방형 지대석 위에 부도를 세웠는데 차례로 놓인 기단부 탑신 옥개석 상륜부재가 모두 8각이어서 신라 석조부도의 전형인 8각원당형을 기본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탑신석은 각 면에 양 우주를 모각하였으며 좌우에 사천왕상을 배치하였는데 문얼굴에 있어서 상부가 반원형을 이루고 또한 문짝 중앙에 자물통과 문고리 두 개를 양각하였다. 양우주 머리에 횡으로 놓인 창방 사이 중앙에는 화반형의 받침재가 놓여 처마도리를 받고 있다. 이 받침재의 형태는 봉정사 극락전의 복화반과 매우 흡사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옥개석은 하면의 탑신석 위에 놓이는 부분에 높고 낮은 2단의 각형받침을 마련하고 처마부는 넓직한 弧形을 이루고 있으며 이 호형면에 비천상을 조식하였다. 그리고 추녀에 이르면서 연목을 모각하였으며 추녀는 거의 수평을 이루다가 우각에 이르러 약간의 곡선을 보이고 있다. 옥개상면은 8면의 합각에 굽직한 추녀마루선을 두고 낙수면에는 기와골을 표시하였으며 기와골 끝에는 암막새와 숫막새기와의 형태를 모각하여 목조건축의 변안임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6) 實相寺 秀澈和尚 楞伽寶月塔(893년)

실상사의 第2祖師인 秀澈和尚의 부도로 극락전 서편에 위치하고 있다. 신라 전형인 8각원당형을 기본으로 삼고 높직한 8각지대석 위에 건립되어 있다. 지대석 위에는 괴임단 등 아무



그림 11. 實相寺秀澈和尚楞伽寶月塔

시설없이 기단부를 놓고 있으며 기단은 상 중, 하대석으로 이루어졌다.

탑신은 8각의 각 면에 兩隅柱가 각출되었는데 동시대의 다른 부도에서 나타나는 기둥의 폭보다 넓어 안정감을 이루고 있다. 전후면에는 문얼굴이 모각되었으며 그 좌우면에 사천왕상을 양각하였다.

옥개석은 전체적으로 평박한데 탑신석위에 놓이는 부분에 1단의 각형받침이 있고 처마부분은 弧形을 이루며 그 면에 비천상을 조식하였다. 그 밖으로 方形의 椽木을 模刻하였다. 옥개 상면은 8면의 모임부에 굽은 추녀마루선을 표시하고 낙수면에는 기와골을 나타내었으며 추녀에 이르러 숫막새와 암막새기와의 모각으로 막음을 하였다. 추녀는 거의 수평이나 끝으로 가면서 위로 치켜 올라간다. 처마선은 안허리선은 거의 없고 약한 仰曲을 이루고 있다.

추녀마루의 끝에는 곱새형의 바래기기와를 배치하였던 흔적이 보인다.

3-3. 建築要素의 形態 및 技法

이상 9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제작된 建築史料 중 비교적 건축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으며 시대적인 특징을 추출할 수 있는 사료를 중심으로 각각 사료의 건축요소의 묘사 및 그 특징

을 서술하였다. 다음으로는 각각의 사료를 종합하여 공통적인 건축적 특징과 성격을 건축요소별로 구분하여 고찰하되 당시의 중국과 일본의 사료를 함께 비교하기로 한다.

(1)기둥

분석된 사료만으로 본다면 기둥은 원주보다 각주가 월등히 많다. 그러나 부도의 특성상 평면형이 다각형인 석재에 기둥을 모각해야 하므로 대부분 석재면에 평행이 되는 각형기둥을 모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철감선사탑의 기둥은 강한 배흘림을 하고 있는 원주로서 기둥 상부에서 서서히 폭이 줄어드는 형태를 취한다. 고려시대의 목조건축의 배흘림과 유사한 형태를 이루고 있다.¹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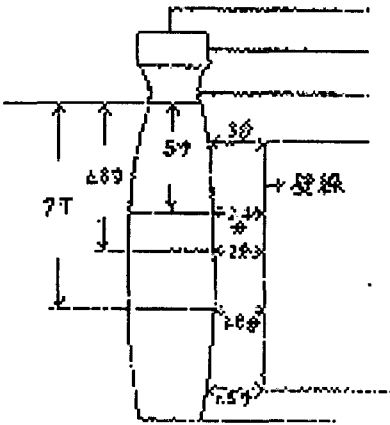


그림 12. 雙峯寺澈鑿禪師塔기둥상세(申榮勳, 「澈鑿國師浮屠의 木造樣式」, 『考古美術』)

석조 유구는 오랜기간을 통하여 마모가 이루어져서 명확히 식별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언급을 하지 않았으나 그림사료와 중국의 사료에 나타나는 9세기 경의 원주는 기둥머리에서 급하게 좁아지는 소위 편수각기¹⁸⁾의 형태가 많이

17) 申榮勳, 「澈鑿國師浮屠의 木造樣式」, 『考古美術』 제4권 제1호 통권30호, 1963, 의 기둥삼화 참조.

18) 기둥상부를 점차 가늘게 하고 그 윗머리 부분을 둥글게 굴러 접은것.(張起仁, 『韓國建築辭典』, 普成閣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철감국사부도에서는 고려시대 목조건축의 기둥처럼 부드러운 배흘림을 하고 있어 당대의 중국건축에서의 배흘림기법과는 다른 신라 나름의 기둥치목법식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2)창호

분석대상의 사료에 의하면 정면 홀수칸의 가운데 어칸을 출입용 문으로 사용하는데 거의 모든 사료에서 문은 2분합의 판문으로 안으로 열리게 되어있다. 이는 중국이나 일본의 건축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문얼굴은 좌우에 문선을 두는데 대부분 등등게 모를 접어 쇠시리를 하였고 그 위아래로 문미와 문지방을 두는데 문지방에는 신방목을 두어 판문의 하중으로 인한 문설주의 구조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한 의도로 이해된다. 어칸 좌우의 협칸은 주로 창을 내는데 대부분 수직으로 창살을 세운 直楹窓의 형태를 하고 있다. 이는 부도, 塼, 그리고 중국이나 일본의 현존건축유구에서도 모두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을 안쪽으로 여는 것은 성곽의 문과 같이 외부에 대해서는 방어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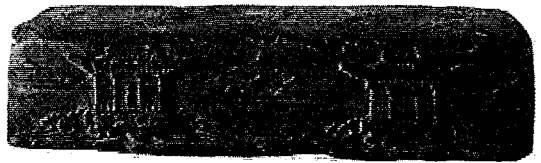


그림 13. 樓閣山水文樣塼의 窓戶(四天王寺 出土)



그림 14. 中國 南禪寺大殿의 立面窓戶(782년)

(3)수장재

창·평방, 인방, 벽선, 주선, 그리고 포벽의 중방 등을 수장재로 볼 때, 평방은 아직 보이지 않으며 단지 창방과 그 아래 상인방을 두단으로 놓아 구조적인 안정감을 더하고자 하는 계획의도를 볼 수 있다. 국내의 예로는 廉居和尚塔, 大安寺塔, 實相寺塔 등에서 보이는데 이는 중국의 李壽墓의 壁畫門樓圖(630년)와 慈恩寺大雁塔門眉石佛殿圖(704년), 그리고 永泰公主墓의 壁畫(706년)에도 잘 나타나 있다. 이는 주심포양식이 정착되기 전에 창방의 운두를 확실하게 결정하지 못하면서 나타난 과도기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는 기둥 사이에도 공포를 놓고자 하는 소위 다포형식을 시작하면서 창방만으로는 주간포작의 하중을 견디지 못해서 상인방과 구조적인 연계를 이루고자 하였던 평방이 나타나기 이전의 과도기적인 모습이라고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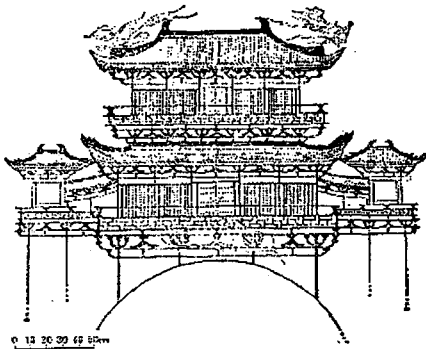


그림 16. 中國 李壽墓 壁畫 樓閣圖(630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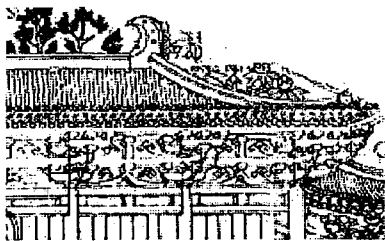


그림 15. 中國 大雁塔 佛殿圖 詳細

(4)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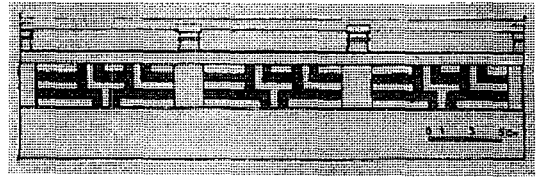


그림 17. 實相寺百丈庵 3層石塔 2層塔身 欄干

국내의 사료 중 實相寺百丈庵 3層石塔과 石燈에 난간이 비교적 상세히 모각되어 있다. 이 난간은 조선시대의 평난간이나 계자난간처럼 현란한 장식이 꾸며지지는 않았으나 지방과 중방 사이에 亞字, 또는 卍字의 난간살대를 꾸미고 이를 난간기둥에 의해 간살을 구분하였으며 그 위로 폭이 좁아지면서 곡소로가 놓여 돌란대를 받치는 간결하면서도 안정된 구조를 지니고 있다. 난간의 살대의 문양을 꾸미는 것은 이미 李壽墓의 벽화그림(그림 17)에 나타나고 있으며 일본의 법륭사 금당에서도 보인다. 또한 안압지에서 출토된 난간부재도 역시 같은 형태를 하고 있어 난간을 꾸미는 방식은 당시에 이미 정착되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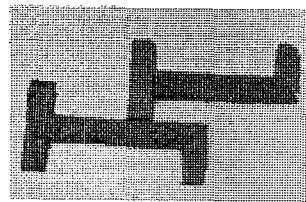


그림 18. 雁鴨池出土 欄干部材

이와같은 난간의 구성기법이 실상사나 법륭사 금당과 같이 그대로 실제건물에 보이는 것이 봉정사 극락전의 불단의 난간구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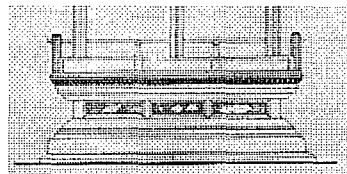


그림 19. 鳳停寺極樂殿 佛壇 欄干

(5)공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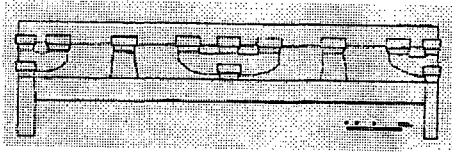


그림 20. 實相寺百丈庵3層石塔 1層塔身栱包帶

9세기를 전후한 건축사례로서 栱包를 보여주는 例는 그리 많지 않다. 비교적 공포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新羅 大方廣佛華嚴經變相圖가 있다. 이 그림은 755년경에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신라 전성기의 작품으로서 당시의 건축을 이해하는 귀중한 사료이다.

기둥머리는 횡부재인 창방이 놓이고 그 위로 주두가 놓이며 보방향으로 침차살미가 놓여 도리방향의 주심침차와 직교된다. 살미침차에는 다시 소로가 놓이고 행공침차가 놓인후 그 위에 세 개의 소로가 놓여 외목도리 장혀를 받고 있는 1출목 2제공의 포작형식을 하고 있다. 당시에 이러한 포작을 이루는 것은 이미 주심포형식의 공포작법이 거의 체계를 갖추었다고 보여지며 당시 중국의 남선사 대전이나 일본의 당초제사 금당 등의 포작법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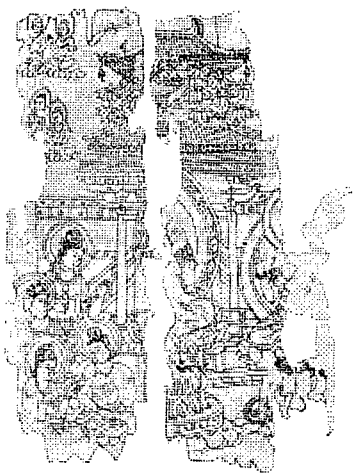


그림 21. 大方廣佛華嚴經變相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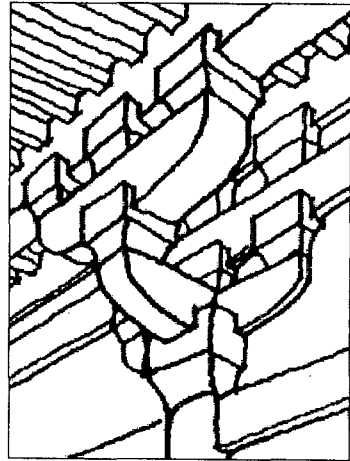


그림 22. 華嚴經變相圖 栱包復元圖

특이한 점은 아직 신라시대의 유구에서 하앙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점으로서 오직 백제의 금동탑에서만 그 흔적이 보일 뿐이다.

한편 다포식의 개념이 보이는 유구로서 경주 박물관 소장 석탑편이 있는데 平昌枋이 주두몸을 감싸고 있어 특이하며 귀공포는 주상의 평신포와 달리 구성하였고 특히 중앙간에는 공간포를 배치하여 당시 다포계의 개념이 존재하였음을 입증하는 유물로서 주목되며¹⁹⁾ 또 다른 유구로서 실상사 백장암 3층석탑의 탑신부에 모각된 공포형태(그림 20)에서 다소나마 다포계의 개념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그림 23. 慶州博物館所藏 塔材

즉, 기둥머리를 횡으로 연결한 창방의 중앙에 포작형식으로 주상부와 같은 방식으로 주두

19) 裴秉宣, 『多包系맞배집에 관한 研究』, 서울대학교 大學院 博論, 1993. pp47~4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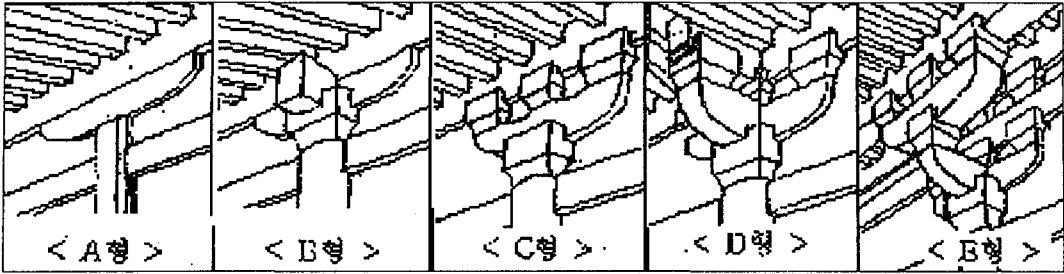


그림 24. 9세기 前後 栱包의 類型

와 첨차 그리고 소로를 짜아서 놓고 그 사이에는 동자대공을 놓아 상부하중을 분산시켜주고 있다. 이는 중국 慈恩寺 大雁塔 門眉石 佛殿圖(704년)에 나타난 동자대공과 唐代의 건물인 佛光寺 大殿(782년)의 공간포의 작법의 중간적인 형태로서 다포계법식의 시원적인 모습으로 추정하고자 한다.

주어진 사료에 의해서 추정하여 도해한 공포의 모습은 모두 5가지 타입으로 구분되며 시대의 전후관계는 아직 명확치 않으나 이 5개의 타입이 모두 당대에 함께 사용되어졌음을 알 수 있다.

(6)처마

분석대상의 사료가 대부분 석조부도이므로 옥개석 하단의 처마부분은 주로 호형으로 궁글리고 그 면에 비천상이나 기타 조식을 하였다. 이것은 석재이기 때문에 목조건축의 공포부에 해당하는 처마부분을 정교하게 모각할 수 없어 이와같은 방식으로 처리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다른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즉, 일본의 唐招提寺 金堂(770년경)의 처마부에서는 기둥 위에 공포를 포작하고 그 위로 주심도리에서 외목도리까지 井字보형의 반자를 하고 이곳에서 다시 下昂이 나와 끝나는 하앙외목까지는 穹窿形으로 천정을 마감하였다. 이는 하앙식 공포에서 간혹 사용되는 처마부의 마감기법으로서 만일 신라시대에 하앙식의 건물이 있었다면 일본 唐招提寺와 같이 처마부를 弧形으로 처리한 건물도 있었을 것이며 따라서 이를 모방하여 석조부도에서 처마를 호형으로 처리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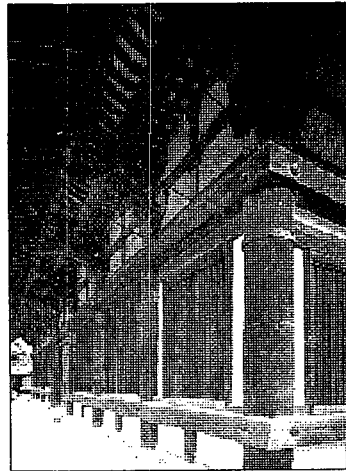


그림 25. 日本 唐招提寺 金堂 穹窿形 처마(770년경)

것일 수도 있다.

(7)가구

대부분의 사료가 석재, 또는 외관만을 파악할 수 밖에 없어 가구방식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러나 외관상 외목도리의 형태와 대공의 형태 등을 식별이 가능하여 구분하였다.

廉居和尚탑과 鸞谷寺 동부도, 實相寺 智證大師 凝寥塔 등의 창방 중앙에 복화반이 있으며 그 형태는 봉정사 극락전의 복화반과 유사하다. 또한 雙峯寺 澈鑿禪師塔과 寶林寺 普照禪師塔에 단장혀가 있어 외목도리는 받치는데 소로가 직접 받지 않고 단장혀를 소로의 폭에 맞추어 결구하여 합리적으로 결구방식을 해결하였다. 외관상 보이는 도리는 대부분 납도리이

므로 이를 받치는데 장혀를 두지 않고 직접 소로를 크게 만들어 점차 위에 올려 놓아 1斗3升式으로 외목도리를 받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8)지붕

지붕의 형태는 우진각지붕이 많고 팔작지붕의 형태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물론 실제 목조건물과는 차이가 있겠으나 지붕의 곡선은 9세기 정도까지의 석조사료, 즉 부도에서 옥개석의 상부로 올라가면서 급하게 휘어져 올라가는데 9세기 후반부터의 사료에서는 거의 지붕곡이 나타나지 않으며 귀꽃 등 목조건물에서는 볼 수 없는 석조부도의 전형이 나타난다.

처마의 양곡은 거의 수평을 이루다가 추녀부에 이르러 약간 휘어 올라가는 완만한 곡을 이루고 있다.

4. 結論

9세기를 전후하여 즉,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체제를 정비한 약 100여년 후 前後時期에서부터 고려초에 이르기까지의 건축유구는 그다지 많지 않은 실정이다. 당시 제작된 文獻, 佛畫, 工藝品, 그리고 石造物 등의 建築史料들은 각각의 사료에서 나타나는 목조건축 부재를 통한 치목, 형태 및 構造法式 등에서 造形 및 樣式史적인 側面에 이르기까지 많은 建築的 內容을 類推·糾明하는데 매우 귀중한 資料라 할 수 있으며 위의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統一新羅 末期, 즉 9세기에서 10세기에 이르는 시기는 사회문화적으로 중국의 禪宗이라는 佛敎의 새로운 宗派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기존의 敎理的이고 엄격한 틀에 의해 이루어져 왔던 건축형식에서 다소 자유롭고 장식적인 성향으로의 변화가 시작되는 시기이다. 이는 중앙집권세력이 약화되면서 지방호족과 중국유학의 선승들이 서로간의 이해관계속에서 결탁되면서 건축주가 지방호족으로 서서히 전이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2. 이러한 性向은 건축적 요소를 표현하고 있는 佛畫와 工藝品, 그리고 石塔, 浮屠등에 표현되는바, 따라서 이러한 史料들이 당시의 목조건축의 상황을 유추·해석할 수 있는 史料的 價値가 있음이 입증된다.

3. 기둥은 주요건물에는 원기둥을 쓰며 배흘림을 두고 기둥의 머리부분에서 급격하게 줄어드는 편수깎기 기법도 간혹 나타난다. 이는 창방의 폭과 맞추면서 기둥의 구조적·의장적인 기능을 유지하기위한 기법으로 이해된다.

4. 건물의 문은 모두 內部로 열리는 2분합의 板門을 달았으며 문얼굴을 구성하는 문틀은 쇠시리로 처리하여 장식적인 표현을 한 것이 많이 나타난다. 또한 하부에 信枋木을 두어 하부에 둔테없이 板門의 하중으로 인한 구조적인 기능성을 확보하였다.

5. 창방위에 놓이는 檐遮는 그 上部에 공간을 두고 있으며 단부는 직절 된 것이 많고 아래로는 3~4번 직선으로 접어 내려가는 소위 卷殺法의 사용이 보편적이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雁鴨池에서 출토된 첨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6. 주두와 소로는 대부분 굽이 내반된 곡선을 이루며 굽받침은 거의 쓰지 않았다.

7. 柱心包의 構造 및 意匠的인 法式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8세기 경에 이미 안정적으로 정착되었고 9세기에 이르러는 다포식의 개념이 서서히 시작되어짐을 몇몇의 유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8. 처마의 구성에서 호형처마는 일본의 唐招提寺 金堂등의 穹窿形천정 구성에서 나타나는 데 이는 하양식의 건물구조일 경우 합리적으로 쓰여지게 된다. 따라서 국내의 석조부도에 나타나는 호형처마는 당시 하양재의 사용으로 인한 궁륭형 처마의 모각일 가능성이 있다.

9. 전반적으로 건물을 화려하게 치장하였고 지붕에는 곱새기와와 암수막새기와 등을 기본적으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표 3. 9世紀 前後 建築史料의 分析

사료명	건축요소	기둥	수장재	창호	공포	처마	가구	지붕	비고
大方廣佛華嚴經 變相圖 (755년)	원주 편수짜기	창방 포중방	없음	없음	곡주두 곡소로 사절첨차	겹처마 연목, 부연 앙곡없음	(?)	우진각지붕 수막새, 치미	난간 1출목행공첨차
權闍山水文樣場 (신라하대)	원주	창방 인방	어간2분합문 양협간직령창	없음	주두, 첨차, 소로	겹처마 앙곡	(?)	우진각지붕 치미	건물 좌우대칭
경주박물관소장 塔材 (신라하대)	원주 배흘림	평방, 창방	어간문선	없음	곡주두, 곡소로, 첨차, 공간포	부연	납도리 단장혀 출목있음	(?)	난간(소로, 동자주)-실상사백장암석탑 과유사/다포계시원
義城塔里 五層石塔 (8세기전후)	방주				곡주두				
實相寺 百丈庵 三層石塔 (9세기경)	방주	창방	문얼굴	없음	간포(곡주두, 곡소로)	양면연화문	동자대공	모임지붕	주두, 소로크기같은 1+3升式 난간근자살대
康唐和尚塔 (844년)	각주	상하인방 창방	문얼굴	없음	없음	弧形 부연, 앙곡없음	복화반	팔모지붕 급새형망와	
大安寺 寂忍禪師塔 (861년)	각주	상하인방 창방	문얼굴	없음	없음	겹처마 방형연목, 부연 仰曲있음	(?)	지붕곡급합 망와혼적	지붕경사강함
雙峯寺 澈靈禪師塔 (868년)	원주 배흘림	창방, 하인방, 포중방(?)	문얼굴, 신방목	없음	기둥위주두, 창방중양소로	弧形겹처마 원형연목, 부연 앙곡거의없음	추녀나단장혀 납도리	지붕곡급합 망와혼적	주두 소로크기같은 일본당초제사처마와 유사
蘆谷寺 東浮屠 (870년)	각주	창방 하인방	문얼굴	없음	주두(?)	弧形겹처마 방형연목, 부연 仰曲약간있음	복화반	지붕곡급합 망와혼적	수장재, 화반-실상사지증대사탑과 유사
寶林寺 普照禪師 影聖塔 (880년)	각주	창방 하인방 포중방	문얼굴, 신방목	없음	곡주두 소로없음	층급형겹처마 방형연목, 부연 앙곡없음	추녀위단장혀	지붕곡없음 기와골있음	문고리, 자물통장식 곡주두, 단장혀
鳳巖寺 智證大師 寂照塔 (883년)	각주	없음	문얼굴, 신방목 쇠시리없음	없음	없음	弧形겹처마 방형연목, 부연 앙곡약간있음	없음	지붕곡급합 지붕면처리	난간과손
雙谿寺 浮屠 (885년)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호형출처마(?)	없음	지붕곡없음 기와골있음	귀꽃장식
實相寺 證覺大師 凝寥塔 (861~893)	각주	창방 상하인방	문얼굴	없음	주두(?)	弧形겹처마	복화반	지붕곡있음 기와골있음	복화반-연곡사동부도와 유사
實相寺 秀澈和尚塔 (893년)	각주	창방 상하인방	문얼굴	없음	없음	弧形출처마 仰曲있음	동자주	지붕곡있음 기와골있음	지증대사탑과 수장재 유사
望海寺址 石造浮屠 (9세기말)	각주	없음	문얼굴상부창 쇠시리없음	없음	없음	弧形처마 연목앙곡없음	없음	지붕곡있음 기와골없음	목조건축형식없이 부도형식으로변화
石南寺 浮屠 (신라하대)	각부	창방, 하인방	문얼굴 쇠시리없음	없음	없음	층급형출처마 골도리, 부연	없음	지붕곡없음 지붕골약간	외목도리표현됨
中國의 史料	李壽墓 壁畫門樓圖 (630년경)	(?)	창방 상인방	추선, 문선 2분합판문	주두, 소로, 첨차	겹처마 단부앙곡	인자대공	우진각지붕 치미	난간 범포사, 실상사 유사
	慈恩寺大雁塔 門楣石佛殿圖(704년)	원주 편수짜기	창방, 상인방 포중방	없음(개방)	곡주두 곡소로 교두첨차	겹처마 납도리 앙곡없음	포중방 인자대공 동자대공	우진각지붕 치미(비록사 치미 유사)	2출목 행공첨차, 1+3升式
	永泰公主墓 壁畫 (706년경)	원주 미흘림 편수짜기	무장방 주두위 2중 탄창방	없음	곡주두 곡소로	없음	단장혀 복화반(봉정사 극락전형)	없음	화반-실상사지증대사탑과 유사
	南禪寺 大殿 (782년)	원주 편수짜기	창방, 인방, 포중방	문얼굴, 신방목 2분합판문, 양 협간 직령창	곡주두, 소로 교두형 주심소, 대첨차	겹처마, 주심납도리, 출목골도리, 약한앙곡	화반 솟을합장재 솟을대공	팔각지붕 치미	2출목 행공첨차, 1+3升式(봉정사)
佛光寺 大殿 (857년)	원주 편수짜기	창방, 상인방, 인방, 포중방	2분합판문 신방목없음 직령창	곡주두, 소로 주심소첩, 대첨 교두형첨차	홀처마 주심납도리 외목골도리	하양식 간포	우진각지붕 지붕곡, 앙곡거의없음	외2출목+하양 중국다포식기원형	
日本 史料	唐招提寺 金堂 (770년경)	원주	창방, 인방, 포중방	2분합판문 신방목없음 직령창	곡주두, 곡소로 교두형첨차	弧形겹처마 (중립형전경)	하양식 동자대공	우진각지붕 지붕곡, 앙곡거의없음	외2출목+하양
	法隆寺 金堂 (8세기초)	원주, 배흘림	창방, 중방, 하인방	2분합판문 신방목없음 직령창	급반침위주두 곡소로 교두형첨차	홀처마	하양식 靈形살미첨차	팔각지붕 용마루곡없음 앙곡골에약간	채양간 2층난간1+3升式 근자살, 人字대공

以上の 研究結果는 現存건축물이 아닌 간접 사료에 의한 분석의 결과이므로 9세기 건축을 파악하는데 어느정도의 한계성을 가진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현재 現存 建築遺構가 없는 時期에 대한 연구대상의 폭과 그 방법을 제시하는 데에 本 연구의 의의를 가질 수 있으며, 앞으로 더욱 다양한 건축사료의 분석을 통하여 韓國 古代 및 中世의 建築을 糾明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參考文獻

1. 박언곤, 『한국건축사강론』, 문운당, 1998.
2. 김동욱, 『한국건축의 역사』, 技文堂, 1997.
3. 張慶浩, 『韓國의 傳統建築』, 文藝出版社, 1992.
4. 尹張燮, 『韓國建築史』, 東明社, 1984.
5. 김동현, 『한국목조건축의 기법』, 발언, 1996.
6. 秦弘燮, 『韓國의 石造美術』, 文藝出版社, 1995.
7. 朴慶植, 『統一新羅石造美術研究』, 學研文化社, 1994.
8.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鳳停寺 極樂殿 修理工事報告書』, 1992.
9. 順天大學校博物館, 『迦智山寶林寺 精密地表調査』, 1995.
10. 全南大學校博物館, 『구례연곡사지표조사보고서』, 1993.
11. 호암갤러리, 『大高麗國寶展』, 三星文化財團, 1995.
12. 호암갤러리, 『高麗, 영원한 美 -高麗佛畫特別展-』, 三星美術文化財團, 1993.
13. 金東賢, 『統一新羅時代의 木造建築樣式』, 『考古美術』 143, 144호, 1979.
14. 金度慶, 朱南哲, 『高麗時代 觀經變相圖의 殿閣圖에 관한 研究』, 大韓建築學會論文集 11卷 4號, 1995.
15. 金東賢, 『韓國古建築斷章』 下, 通文館, 1977.
16. 張起仁, 『韓國建築史大系』 IV 韓國建築辭典, 普成文化社, 1985.
17. 張起仁, 『韓國建築史大系』 V 木造, 普成文化社, 1988.
18. 韓基汶, 『高麗寺院의 構造와 機能』, 民族社, 1998.
19. 許興植, 『高麗佛教史研究』, 一潮閣, 1986.
20. 金香淑, 『羅末·麗初의 八角圓堂形 石造浮屠研究』, 弘益大 碩論, 1987.
21. 추만호, 『나말여초 선종사상사 연구』, 이론과 실천, 1992.
22. 裴秉宣, 『多包系맛배집에 관한 研究』 서울대 大學院 博論, 1993.
23. 博遠出版有限公司, 『中國古代建築技術史』, 臺北, 1988.
24. 梁金錫 譯, 『中國建築概說』, 泰林文化社, 1990.
25. 日本建築學會編 彰國社 刊, 『日本建築史圖集』 日本建築學會, 1996.
26. 近藤 豊, 『古建築의 細部意匠』, 大河出版, 1986.
27. 漢寶德, 『斗栱의 起源與發展』, 臺北.
28. 淺野 清, 『日本建築의 構造』, 『日本の美術』 10, 凸版印刷株式會社, 1986.

A Study on Wooden Architectural Techniques in 9 Century

- Mainly about the Analysis of Historical Materials of Architecture -

Yoon, Hee-Sang

(Assistant Professor, Shinheung Colleg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nect the technics and form from ancient to Korea Dynast. But in these period there is no buildings remains but paintings, fine arts, and stupas. In the historical materials there are many architectural form and signature revealings, so as a result these analysis,

1)The building showed in paintings of Silla, and Korea Dynasty reflect the architectural style their own Dynasty.

2)In detail, the architecture of Silla and Korea Dynasy was connected with Chinese architecture Liao, Song. But from the 8Century Koreans were succeeded the one of Silla Dynasty and had originility in architectural style.

3)The architectursl style in Silla and Korea Dynasty were very various and very rich content.

And we must more serious study of historical materials so that we improve the ancient a middle age of architcture in Korea.